

삼성, 테슬라 추가수주 기대 파운드리 사업 반등 '청신호'

일론 머스크, AI칩 양산 언급
삼성 美 테일러 공장 이목집중
"파운드리 수익성 긍정적 작용"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추가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반등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AI4 업그레이드 칩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사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적자가 이어진 삼성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분기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22일 실적발표회에서 "회사의 AI 칩 'AI4'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며 "양산 시점은 내년 중반쯤으로 예상 하지만 삼성이 우리를 위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국 삼성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지난 2023년 양산된 AI4의 연산 성능과 용량을 높인 제품이다. 아직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AI4+ 또는 AI4.1로 불린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앞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은 테슬라의 AI4와 AI6 칩 생산을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머스크 CEO를 통해 공식화된 AI6 수주 계약 규모는 약 23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번 AI4.1 제품 수주까지 더해지면 양사의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개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30일 삼성전자는 1분기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 예정이다. 이날 테일러 공장의 구체적인 가동 시점과 고객사 협력 현황 등 파운드리 전략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57조2000억원으로 메모리 비중이 95%에 달한다.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1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을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AI4에 이어 AI 4.1까지 삼성 파운드리가 맡게 되면 단순 추가 수주를 넘어 고객사 로드맵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 7나노 공정을 활용한 반복 수주는 신규 수요 창출과 가동률 개선 측면에서 파운드리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IEEE 어워즈' 기업혁신상

혁신적인 HBM 솔루션 선제 제시
글로벌 AI 컴퓨팅 확산 이끌어

SK하이닉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어워즈 기념식'에서 기업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IEEE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 전문가 단체로, 인류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해당 단체가 주최하는 'IEEE 어워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상식으로, 메달, 기술 분야상, 공로상 등 3개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을 이룬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로상에 속하는 기업혁신상은 혁신 기술로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198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SK하이닉스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모든 세대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AI 플랫폼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HBM 혁신과 응용을 통해 AI 컴퓨팅 확산을 이끈 공로에 대한 것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혁신적인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IEEE 어워즈 기념식에서 기업혁신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SK하이닉스

HBM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 점이 주효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강조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 기조 아래 미국 내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꾸준히 넓혀온 행보도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이 회사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안 사장은 "기술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 온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글로벌 고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를 앞서 만들어 내며 AI 혁신을 이끄는 일류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전력기기업체, 북미 중심 실적개선 본격화

LS일렉트릭 1분기 영업익 45% ↑
효성중 신규 수주 4.1조... 분기최대
HD현대일렉트릭 매출 1.1조 전망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이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5% 증가했다. 전력 사업 매출은 9584억원으로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05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수주 기반도 확대됐다. LS일렉트릭의 1분기 말 수주잔고는 5조6425억원으로 2025년 말보다 13% 늘었다. 북미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송배전 장비와 전력 솔루션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효성중공업도 초고압 변압기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582억원, 영업이익 15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2%, 영업이익은 48.8% 증가했다. 수주 성과도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월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확보했다.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미국 송전망 프로젝트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1분기 신규 수주는 4조1745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15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HD현대일렉트릭도 실적 확대가 예

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1조1082억원, 영업이익을 2708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24.1% 증가하는 수준이다.

주요 업체들이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주잔고의 매출 반영은 향후 실적 안정성과 성장 여력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 전력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수요가 확대됐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의 수주 환경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D현대, 美 해군연구청 연구과제 2건 수주

합정성능 개선·첨단제조 기술 개발

HD현대 미국 해군연구청(ONR)으로부터 합정 성능 개선 관련 연구 과제 2건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ONR과 연구 과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R은 미 해군성 산하 기관으로,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한다.

HD현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합정 성능 개선 기술을 개발한다. HD현대중공업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 합정 건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 기술 개발 과제도 맡았다. 해당 연구는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 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HD현대는 미 해군과 합정 개발부터 건조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협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합정 분야 첨단 기술력을 미 해군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합정·중형선 사업대표 사장은 "이번 ONR 과제 수주를 계기로 미국과 합정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K-해양방산의 영토를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 냉난방공조 제품, 獨 소비자 만족도 1위

ITQF 선정... 생활가전 전반 저력 입증

삼성전자 히트펌프와 에어컨 등 냉난방공조 제품이 독일 품질금융연구소(ITQF)가 실시한 '최고의 가격대비 품질 2026' 조사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최대 브랜드 선호도 조사 비영리기관인 ITQF는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삼성전자는 2022년 신설된 히트펌프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에어컨 부문에서도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난방과 바닥 냉난방, 급탕까지 제공한다. 특히 공기와 물을 동시에 활용해 공기와 바닥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은 사용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과 진공청소기 부문에서 각각 6년 연속,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생활가전 전반에 걸친 브랜드 저력을 입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철강 거래사 지원 확대... 수출 경쟁력 높인다

국제강재 등 7곳 수출대응 여력 개선

포스코가 관세 장벽과 고환율로 자금 부담이 커진 철강 거래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며 수출 공급망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1월부터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 거래사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보증 비율은 100%다. 기업은행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2% 수준의 우대대출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담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보증·금리 우대 조건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강재와 티지에스스파이프 등 철강 거래사 7곳은 금융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수출 대응 여력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기존 약 7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펀드와 철강 ESG 상생펀드에 이번 프로그램을 더해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거래사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 생태계 강건화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